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 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상관성



2019년 8월 23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간호학과

김 수 희

간 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상관성

지도교수 조규영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23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간호학과

김 수 희

김수희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3일



위원장 간호학박사 이 유 미



위 원 간호학박사 김 명 수



위 원 간호학박사 조 규 영



목 차

Abstract	iv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 정의	4
가. 폭력피해경험	4
나. 교사 소진	4
다. 외상 후 성장	5

II. 문헌고찰

1.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6
2.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성장	10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13
2. 연구 대상	13
3. 연구 도구	14
4. 자료 수집 방법	16

5. 윤리적 고려	17
6. 자료 분석 방법	17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
2.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 정도	20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의 차이	23
4.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	25
V. 논의	27
VI. 결론 및 제언	35
참고문헌	38
부록	
부록 1.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45
부록 2. 설문지	46
부록 3. 폭력피해경험도구 사용 동의	51
부록 4. 교사소진 도구 사용 동의	52
부록 5. 외상 후 성장 도구 사용 동의	53
부록 6. IRB 승인 통지서	54

표 목 차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9
Table 2. Violence Victim Experience, Teacher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21
Table 3. Types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22
Table 4. Differences in Degree of Violence Victim Experience, Teacher Burnout,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4
Table 5. Partial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Victim Experience, Teacher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26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Victimization,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Soo Hui, K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Gyoo-Yeong, Cho, PhD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teacher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7 teachers working at fou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Busa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n 130 persons (94.9%) who answered that they had violence victim experience among 137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tudy conducted from February 10, 2019 to March 20, 2019. The research tool was Teach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Checklist(TVVEC) developed by Wilson et al.(2011) and adapted by Lee & Jo(2015),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developed by Maslach and Jackson(1981) and adapted by Kim(1991), PTGI(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developed by Tedeschi and Calhoun(1996) and adapted by Song (2007).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via SPSS/WIN 23.0 program.

Results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teachers in their 50s(58.5%) and the mean age was 48.84 ± 9.85 years. 53.8% of the subjects were women, and the teaching career was 21~30 years with 39.2% and the average was 20.92 ± 12.16 years. Education level was 54.6% in college graduates and 45.4% in graduate schools. 81% of participants were married. Regular teachers made up 76.2% of the study followed by 21.5% manager teachers, and 2.3% supervisors. The Role of teachers were class teachers at 50.8% followed by 45.4% subject teachers and 3.8% of the participants were counselors and nurse teachers.

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age($t=2.48$, $p=.047$).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acher burnout according to gender($t=9.94$, $p=.002$) and teaching career($t=2.55$, $p=.04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gender($t=-2.11$, $p=.033$).

3.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the teachers burnout($r=.38$,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r=.24$, $p=.007$). The teachers burnou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ost-traumatic growth($r=-.32$,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a life guidance or problem solving pla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chools to prevent the violence victimization by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s well as to reduce teacher burnout, and to support post-traumatic growth.

Key words :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teacher, Teacher burnout, Post-traumatic growt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2018)에 의하면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는 490개 교이며, 이중 사립학교는 평균 44.5%이며, 부산은 73.5%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특성화고 학생은 낮은 학업성취 및 중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반사회성 수준이 높아 (Park, 2010) 학생들을 관리·지도함에 있어 교사는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Lee, 2017).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교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Kim, Lee, & Koo, 2005), 교사의 심리적 안녕은 교사 개인의 교직사회 적응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교적응, 학업성취를 비롯한 성장과 발달, 더 넓게는 학교교육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Jeong & Yu, 2015).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학생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포함시켜 교사에 대한 법적보호 및 민간단체의 지원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10),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학교폭력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 따라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yu, 2013).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1,065건의 폭력피해를 포함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5년 간 폭력피해를 포함

한 교권 침해 사례는 23,574건으로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0년 초반까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었고(Choi, 2016), 교사의 폭력 경험과 정신건강 및 소진과의 관계(Kwon, 2010), 폭력 피해교사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에 관한 질적 연구(Lee & Son, 2013)를 비롯하여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와 대처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Park & Jo, 2015)등이 진행되어 왔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대화와 업무에 있어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을 참고, 교사로서 사회가 원하는 교사상에 입각해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정근로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타 직종에 비해 높아 소진이나 기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Park, 2012).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이 심화되고, 감정노동을 수행할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ark & Choi, 2015), 폭력피해를 포함한 교권침해가 소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Jeong & Yu, 2015; Choi & Ju, 2015). 심리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Kim, Lee, & Koo, 2005), 교사의 소진은 교육실패의 원인을 제공한다(Park, 2012). 교사 소진은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Kang, 2009)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Shin & Lee, 2014).

폭력 피해 교사들은 전형적으로 분노, 풀리지 않은 답답함과 자책감 등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신체증상이 나타나거나 과민함, 급격한 피로감, 지인과 만남을 피하거나 대인관계의 민감성 증가 등 신체적이고 관계적 변화를 후유증으로 보고하고 있다(Park & Jo, 2015). 이러한 폭력피해 교사의 폭력 직후 여러 반응이 외상자의 외상 경험 이후의 반응과 유사하여(De Wet, 2010) 폭력피해 교사들이 일종의 외상 경험을 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외상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기도 하지만 외상을 겪은 어떤 사람들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Park & Helgeson, 2006). 외상 후 성장은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 사건과의 투쟁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이는 개인의 이전 적응 수준을 넘어서는 자신 및 타인,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 경험은 향후 적응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발현을 억제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Choi, 2008), 다른 외상이나 강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보다 적응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Yang, 2014).

현재까지 교사 소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교사의 폭력경험과 소진의 관계(Kim & Lee, 2015; Choi, 2016), 교사의 폭력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Kim, 2018)에 대한 연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교사의 폭력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 세 변수를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력경험과 소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Kwon, 2010; Choi & Ju, 2015; Choi, 2016),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폭력피해와 소진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 정도 및 이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3. 용어 정의

가. 폭력피해경험

- (1) 이론적 정의 : 교사에게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혹은 전문성에 있어 해를 입힐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동을 의미한다(De Wet, 2010).
- (2) 조작적 정의 : Wilson, Catherine M., Douglas, Kevin S., & Lyon, David R(2011)이 개발하고 Lee & Jo(2015)가 번안한 교사폭력피해 경험 체크리스트(Teach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Checklist: TVVEC)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피해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교사 소진

- (1) 이론적 정의 : 교사로 하여금 교직과 학생, 교육에서 분리·소외된 존재가 되어 교육력 저하, 교직 몰입, 직무충실도 저하, 헌신·봉사가 사라진 역기능 상태를 말한다(Kim & Kim, 2006).

- (2) 조작적 정의 :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Kim(1991)이 교직상황에 맞게 번안한 척도의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외상 후 성장

- (1) 이론적 정의 : 인간이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로서 외상 후 성장을 말한다(Tedeschi & Calhoun, 1996).
- (2) 조작적 정의 :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하고 Song(2007)이 번안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Goldstein과 Conoley(1997)은 폭력 피해 교사가 전쟁터에서 귀환한 군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전투 신경증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 이를 ‘매맞는 교사 증후군(battered teacher syndrome)’ 이라고 정의하였다. 매맞는 혹은 손상된 교사 증후군은 불안, 수면장애, 섭식장애, 우울, 두통,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수반하며,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학교 내 유대 관계 손상,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상을 경험하며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15). Wilson et al(2011)은 실제적인 또는 시도되거나 위협된 피해로 교사 대상 폭력을 개념화하였고, 많은 연구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주로 폭력(violence)보다는 괴롭힘(bullying)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Kim, 2018).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폭력피해의 종류별 빈도는 언어폭력,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기, 사이버 괴롭힘, 집단무시, 재산손괴, 성희롱, 신체폭행 순으로 나타났다(Jang, Yoo, Lee & Kim, 2012).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Yeum(2014)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피해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위협, 언어폭력 순이었다.

2016년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에서 미국의 교사들에게 일일 단위로 폭력경험 실태를 범국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교직기간 동안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이를 ‘침묵하는 국가 위기’라고 표현하였다. 터키의 초·중학교 교사 902명을 대상으로 한 Ozdemir(201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48.7%가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인 폭

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력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폭력을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9%로 나타났으며, Shin(2017)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 폭력을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62.1%로 나타났다. 폭력의 가해자는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부모, 관리자, 동료 교사 등 다양하지만, 주로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폭력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등, 2012).

교사에 대한 폭력 등 교권침해가 심화된 요인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새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 개성을 중시하는 학생, 자녀의 교육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학부모, 교육정책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는 정부, 선정적 보도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 사교육 열풍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감 등을 들 수 있다(Jang, 2003).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교사의 법적책임은 증가한 반면, 폭력 피해자로서 교사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Ryu, 2013).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원인은 ‘가해학생의 수업진행 방해를 나무라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폭력유형별 사건 처리방식은 ‘가해학생과 상담 후 종료’, ‘모른 척 무시하고 넘어감’ 순이었다(Jang 등,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보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를 더 많이 하고(Do, 2007), 교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Park, 2010). Kim(2017)의 질적 연구에서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학교장, 동료 교사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교육청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진(Burnout)은 1974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Freudenberger가 명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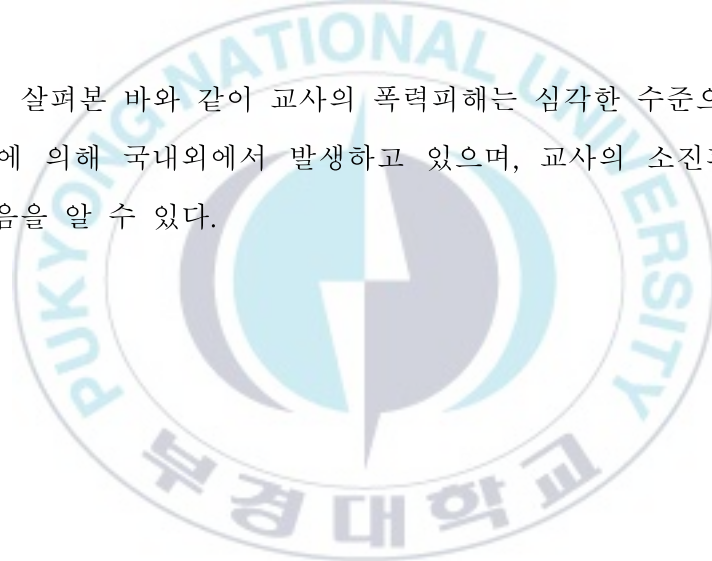
으며, 특히 정서적인 부담이 있는 작업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강조되는 직종의 근로자와 관련한 주요문제로 인식되어 왔다(Choi, 2016).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소진이 일어나기 쉽다(Kim & Kim, 2006). 다수의 교사들은 소진을 경험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을 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상실되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며, 교사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orey, 1998).

선행 연구에서 학생의 부정적 행동과 교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으며(Park, 2012), 학생의 문제행동이 소진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Lee, 2016). Park & Choi(2015)의 연구에서 학생의 문제행동 정도가 증가할수록 교사의 소진이 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정노동이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7)의 연구에서 장애 학생에 의한 상해 경험이 특수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2014)의 연구에서는 상해를 경험한 특수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활동 시 위축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40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 Na(2018)의 연구에서 소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순으로 나타났다. Kwon(2010)의 연구에서 폭력피해 교사는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2)의 연구에서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은 학생의 무례함 정도에 의해, 비인간화는 학생의 무례함과 낮은 사회성에 의해, 개인적 성취감 저하는 학생의 낮은 사회성에 의해 예측되었다. 또한 Choi(2016)의 연구에서 내현적 폭력, 외현적 폭력, 성희롱 등 기타폭력 피

해경험이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교사는 소진을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은 권위상실감, 교권위축 및 자존감 저하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진을 유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Kim & Lee, 2015). 교사들이 소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은 문제에 대한 자발적 대응노력, 타인의 정서적지지 및 조력, 개인 내적 변화, 외부상황에 따른 자연적 회복 등이며, 방해 요인은 개인 특성 및 역할 갈등, 관계 갈등 및 자원 부족, 직무 환경으로 나타났다(Jeong 등, 20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폭력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소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을 뜻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외상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특징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세 가지 영역은 첫째, 자기와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 둘째, 대인관계의 변화, 셋째, 삶에 대한 철학적·영적 인식의 변화이다(Yang, 2014). 외상 후 성장에 대해 Choi(2008)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발현을 억제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완충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외상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보다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므로 폭력피해를 경험한 교사에게 외상 후 성장은 역경을 딛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한다(Lee, 2015).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은 첫째, 외상 후 인지적 과정을 통한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적응을 대처결과로 나타내는 외상 후 성장 모델, 둘째, 외상 후 긍정적인 착각 과정을 통하여 적응해가는 대처과정 모델이며, 이 때 대처과정은 외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다(Han, 2016). 세 번째로 위의 두 가지 모델을 절충한 야누스 얼굴모델은 외상 후 초기에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왜곡된 긍정적 착각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대처결과의 측면으로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고 있다(Lee, 2012).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상 후 성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Yun, 2015). Martin Seligman(2011)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상 사건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과민함을 탈 감각시키고, 사건에 대한 인지처리 과정을 탐색하여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안전감을 되찾고, 삶의 기능과 세계관을 재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폭력을 포함한 교권침해 발생 장소는 교실이 81.3%로 가장 많았고(Choi

& Ju, 2015), 주체는 학생이 87.2%로 가장 많아(Jang 등, 2013) 매일 교실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폭력피해가 반복적인 외상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 교사들은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정신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Kwon, 2010). Park & Jo (2015)의 질적 연구에서 폭력피해 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에게 현실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후 혼자이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려 하고, 동료교사와 대처방법을 상의하지 않았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Go, & Lee(2012)의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장애 학생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사건 후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지만 개인 심리적인 내부요인과 가족 및 동료들로부터의 심리적 지지와 같은 외부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회복탄력적인 재통합 과정을 보였다.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가 아닌 문제행동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Lee, 2017).

APA(2016)에서는 학생의 폭력행동 촉발요인과 경고사인을 분석하여 폭력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 및 사후 대응 예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의 폭력예방 역량과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Reimagining Health Care(2011)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사들에게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Penn Resilience Program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이 2년 전보다 줄었고 이를 군대에도 적용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Hong, 2009),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Kim, 201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Kim, 2016), 연령이 많을수록(Lee, 2015), 심리적 강인성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 후 성장은 외상사건을 극복하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사의 폭력피해 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4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effect size .30, 상관분석에 투입될 표본크기를 산출 하였을 때 표본수는 115명으로 제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3. 연구 도구

1) 폭력피해경험

폭력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Wilson, Douglas, Kevin & Lyon(2011)이 개발하고 Lee & Jo(2015)가 번안한 교사폭력피해경험체크리스트(Teach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Checklist: TVVEC)를 Choi(2016)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교사의 선별은 본 척도의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한 번 이상’에 표기한 경우 폭력상황에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주로 언어적 폭력과 무례한 행동을 포함한 ‘내현적 폭력’ 5문항(문항번호: 1, 2, 3, 4, 5),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포함한 ‘외현적 폭력’ 6문항(문항번호: 6, 7, 8, 9, 10, 11), 성희롱, 경제적 피해 등을 포함한 ‘기타 폭력’ 4문항(문항번호: 12, 13, 14, 15)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0=한번도 없었다, 4=자주 있었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피해 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점수는 문항별 평균 점수로 분석하였다. Kim(2018)과 Choi(2016)의 연구에서 최근 1년 이내 폭력피해경험을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최근 1년 이내 폭력경험을 측정하였으며, Choi(2016)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의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 는 내현적 폭력 .86, 외현적 폭력 .87, 기타 폭력 .87이었다.

2) 교사 소진

교사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Kim(1991)이 교직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여러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으로 ‘정서적 고갈’ 9문항(문항번호: 1, 2, 3, 6, 8, 13, 14, 16, 20), ‘비인간화’ 5문항(문항번호: 5, 10, 11, 15, 22), ‘개인적 성취감 상실’ 8문항(문항번호: 4, 7, 9, 12, 17, 18, 19, 21)이 있다. 이 중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역산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 7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6=매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점수는 문항별 평균 점수로 분석하였다. Choi(2016)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 소진의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 는 정서적 고갈 .93, 비인간화 .92, 개인적 성취감 상실 .89였다.

3)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Song(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으로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문항번호: 6, 7, 8, 9, 12, 13),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문항번호: 3, 5, 10, 11, 14),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문항번호: 1, 2, 4), ‘종교적 관심 증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im (2018)의 연구와 같이 종교와 관련된 2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6점 척도(0=경험하지 못함, 5=매우 많이 경험함)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점수는 문항별 평균 점수로 분석하였다. Kim (201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 는 자가지각의 변화 .91,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94,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92였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교직 경력, 결혼 상태, 직위, 직무 형태, 월수입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B광역시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연구 참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2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0일로, 총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40부(100%)를 회수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미기입된 문항이 있는 불충분한 자료 3부를 제외한 총 137부를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137명 중 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0명(94.9%)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P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PKNUIRB-2019-03).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료는 무기명 처리하였으며, 연구 도중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코딩화된 데이터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 자료는 의무보관기한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는 Partial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137명 중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130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48.84 ± 9.85 세였으며, 50대가 58.5%(7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20대, 60대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53.8%(70명), 남성이 46.2%(60명)였다. 교직경력은 평균 20.92 ± 12.16 년이었으며, 21~30년이 39.2%(51명)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와 31년 이상, 6~10년, 11~20년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4.6%(71명), 대학원 이상이 45.4%(59명)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81.0%(106명)이었으며, 직위는 평교사 76.2%(99명), 부장교사 21.5%(28명), 관리자(교장, 교감) 2.3%(3명)순이었다. 근무형태는 담임교사 50.8%(66명), 교과담당교사 45.4%(59명), 상담 및 보건교사 3.8%(5명)순이었다. 월수입은 300~399만원이 29.2%(38명)로 가장 많았고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200~299만원, 200만원 미만 순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	Category	N(%)
Age* (year)	≤29	6(4.6)
	30-39	23(17.7)
	40-49	20(15.4)
	50-59	76(58.5)
	≥60	5(3.8)
Gender	Male	60(46.2)
	Female	70(53.8)
Teaching career** (year)	≤5	27(20.8)
	6-10	13(10.0)
	11-20	12(9.2)
	21-30	51(39.2)
	≥31	27(20.8)
Educational status	University	71(54.6)
	Master and above	59(45.4)
Marital status (with spouse)	Yes	106(81.0)
	No	24(19.0)
Position	Regular teacher	99(76.2)
	Manager teacher	28(21.5)
	Supervisor	3(2.3)
Role in teaching	Class teacher	66(50.8)
	Subject teacher	59(45.4)
	Counselor, Nurse teacher	5(3.8)
Monthly Income (10,000KRW)	<199	5(3.8)
	200-299	27(20.8)
	300-399	38(29.2)
	400-499	32(24.6)
	≥500	28(21.5)

* Mean Age 48.84±9.85 (year)

** Mean Teaching Career 20.92±12.16 (year)

2. 연구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폭력피해경험은 1.05 ± 0.85 점, 교사소진은 2.13 ± 1.05 점, 외상 후 성장은 2.89 ± 1.07 점이었다. 폭력피해경험 하위유형은 내현적 폭력 1.49 ± 0.91 점, 외현적 폭력 0.41 ± 0.22 점, 기타 폭력 0.31 ± 0.45 점 순이었다. 교사소진의 하위유형은 정서적 고갈 2.61 ± 1.05 점, 개인적 성취감 상실 1.91 ± 1.14 점, 비인간화 1.59 ± 1.25 점 순이었다. 외상 후 성장의 하위유형은 자가지각의 변화 3.01 ± 1.25 점,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2.83 ± 1.16 점,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2.80 ± 1.14 점 순이었다.

폭력피해의 내용별 빈도는 <Table 3>과 같다. 내현적 폭력에서 ‘인신공격 또는 욕설’이 93.1%(121명)로 가장 많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무례하고 저속한 몸짓’ 82.3%(107명),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관계를 해치는 말’ 82.3%(107명), ‘겁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참을만한 수준의 상습적 행동’ 76.9%(100명), ‘겁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나 품행’ 73.1%(95명) 순이었다. 외현적 폭력에서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할 듯 위협’이 36.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시도함’ 21.4%(20명),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함’ 10.8%(14명), ‘흉기를 소지한 학생으로부터 위협’ 6.2%(8명), ‘흉기를 소지하고 폭력을 시도함’ 5.4%(7명), ‘흉기를 소지한 학생으로부터 실제 폭력을 당함’ 3.1%(4명) 순이었다. 기타 폭력에서는 성희롱이 24.6%(32명)로 가장 많았고 개인 소유물 훼손 10.0%(13명), 스토킹 4.6%(6명), 가족에 대한 협박 1.5%(2명) 순이었다.

Table 2. Degree of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Teacher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N=130)

Variable	Min-Max	Mean±SD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0.70 ~ 2.27	1.05±0.85
Internal violence	0.20 ~ 4.00	1.49±0.91
External violence	0.00 ~ 2.33	0.41±0.22
Other violence	0.00 ~ 1.50	0.31±0.45
Teacher burnout	0.27 ~ 4.36	2.13±1.05
Emotional depletion	0.27 ~ 5.56	2.61±1.31
Dehumanization	0.22 ~ 5.00	1.59±1.25
Loss of personal accomplishment	0.00 ~ 4.25	1.91±1.14
Post-traumatic growth	0.00 ~ 5.00	2.89±1.07
Changes in self-perception	0.00 ~ 5.00	3.01±1.25
Increased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00 ~ 5.00	2.80±1.14
Discovery of new possibilities	0.00 ~ 5.00	2.83±1.16

Table 3. Types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N=130)

Type	Violence behavior	n(%)
Internal violence	Attack or abuse	121(93.1)
	Rude and vulgar gestures for offensive or threatening purposes	107(82.3)
	A word that defamates or disrupts relationships	107(82.3)
	Intentional intent to be scared	100(76.9)
	Intentional behavior or behavior to intimidate or threaten	95(73.1)
External violence	Threat of physical violence without possession of a weapon	46(36.4)
	Attempted physical violence without possession of a weapon	20(21.4)
	Physical violence without possession of a weapon	14(10.8)
	Holding a weapon and threatening physical violence	8(6.2)
	Holding a weapon and attempting physical violence	7(5.4)
	Carry weapons and commit physical violence	4(3.1)
Other violence	Sexual harassment	32(24.6)
	Damaged personal possessions	13(10.0)
	Stalking	6(4.6)
	Threats to families, violence attempts, actual violence	2(1.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정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폭력피해경험은 20대가 1.30 ± 0.71 점으로 40대 0.62 ± 0.33 점보다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 p=.0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성별과 교직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소진은 남교사 2.43 ± 1.13 점, 여교사 1.87 ± 0.91 점으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9.94, p=.002$). 교직경력에 따른 소진은 21~30년이 2.40 ± 0.98 점으로 가장 높았고, 6~10년 2.32 ± 1.06 점, 31년 이상 2.03 ± 1.08 점, 5년 이하 1.88 ± 1.00 점, 11~20년 1.52 ± 1.12 점 순이었다($t=2.55, p=.0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여교사 3.08 ± 1.03 점, 남교사 2.68 ± 1.09 점으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1, p=.033$).

Table 4. Differences in Degree of Violence Victimization, Teacher Burnout,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	Category	Violence victimization		Teacher burnout		Post traumatic growth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Age	≤ 29 ^a	1.30±0.71	2.48	2.20±1.16	2.22	2.94±0.84	1.38
	30-39 ^b	1.05±0.74	(.047)*	1.91±1.04	(.71)	3.17±0.87	(.245)
	40-49 ^c	0.62±0.33	a>c	1.79±1.01		3.09±1.07	
	50-59 ^d	1.01±0.64		2.33±1.05		2.72±1.10	
	≥ 60 ^e	0.64±0.28		1.35±0.29		3.41±1.43	
Gender	Male	1.12±0.75	.398	2.43±1.13	9.94	2.68±1.09	4.62
	Female	1.08±0.74	(.529)	1.87±0.91	(.002)**	3.08±1.03	(.033)*
Educational status	University	0.92±0.48	1.61	2.24±1.01	1.34	2.76±1.05	-1.51
	Master and above	1.07±0.49	(.207)	1.99±1.08	(.182)	3.05±1.09	(.132)
Teaching career	≤5	1.10±0.71	.57	1.88±1.00	2.55	3.21±0.85	2.22
	6-10	1.16±0.74	(.686)	2.32±1.06	(.042)*	3.24±1.33	(.070)
	11-20	1.02±0.33		1.52±1.12		3.13±0.78	
	21-30	0.81±0.64		2.40±0.98		2.58±1.14	
	≥31	0.68±0.28		2.03±1.08		2.90±1.02	
Marital status (spouse)	Yes	1.09±0.83	1.22	2.19±1.07	1.58	2.84±1.09	1.52
	No	1.02±0.86	(.271)	1.88±0.90	(.211)	3.14±0.97	(.219)
Position	Regular teacher	1.13±0.94	.99	2.15±1.05	.19	2.92±1.05	.66
	Manager teacher	1.05±0.78	(.374)	2.08±1.09	(.830)	2.74±1.18	(.521)
	Supervisor	0.58±0.39		1.80±0.85		3.40±0.90	
Role in teaching	Class teacher	1.02±0.74	.06	1.97±1.06	1.88	2.93±1.05	2.06
	Subject teacher	1.08±0.89	(.946)	2.32±1.04	(.157)	2.74±1.18	(.132)
	Counselor, Nurse teacher	0.76±0.55		1.91±0.78		3.40±0.90	
Monthly Income (10,000 KRW)	≤ 199	1.06±0.65	.74	1.63±1.40	1.43	2.69±0.78	1.93
	200-299	1.10±0.74	(.566)	1.90±1.00	(.229)	3.34±0.79	(.109)
	300-399	1.04±0.67		2.08±1.01		2.93±1.14	
	400-499	0.81±0.49		2.45±1.02		2.62±1.03	
	≥ 500	0.63±0.41		2.12±1.09		2.75±1.22	

(* $p < .05$, ** $p < .01$)

4. 폭력피해경험, 소진,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제된 상태에서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폭력피해경험은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8, p<.001$), 소진의 하위영역인 비인간화($r=.35, p<.001$), 정서적 고갈($r=.33, p<.001$), 성취감 상실($r=.2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피해경험은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 중 새로운 가능성 발견($r=.24, p=.007$)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진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2, p<.001$),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인 내적 강점 발견($r=-.39, p<.001$), 대인관계 깊이 증가($r=-.35,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소진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Partial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Teacher Burnout and Post-traumatic Growth

(N=130)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i>r(p)</i>											
1	-											
2	.92 (.000)	-										
3	.78 (.000)	.50 (.000)	-									
4	.64 (.000)	.43 (.000)	.56 (.000)	-								
5	.38 (.000)	.39 (.000)	.27 (.001)	.15 (.122)	-							
6	.33 (.000)	.35 (.000)	.25 (.004)	.07 (.421)	.90 (.000)	-						
7	.35 (.000)	.33 (.000)	.28 (.001)	.20 (.026)	.85 (.000)	.71 (.000)	-					
8	.29 (.000)	.27 (.002)	.24 (.005)	.12 (.177)	.79 (.000)	.49 (.000)	.54 (.000)	-				
9	.06 (.490)	.09 (.309)	-.04 (.697)	.09 (.338)	-.32 (.000)	-.19 (.030)	-.28 (.001)	-.36 (.000)	-			
10	-.02 (.787)	-.01 (.946)	-.06 (.488)	.02 (.849)	-.39 (.000)	-.25 (.004)	-.37 (.000)	-.41 (.000)	.94 (.000)	-		
11	.05 (.579)	.08 (.388)	-.05 (.583)	.10 (.252)	-.35 (.000)	-.23 (.008)	-.33 (.000)	-.36 (.000)	.93 (.000)	.81 (.000)	-	
12	.24 (.007)	.28 (.001)	.07 (.478)	.16 (.062)	.06 (.509)	.11 (.223)	.12 (.184)	-.07 (.420)	.77 (.000)	.58 (.000)	.64 (.000)	-

1. Tota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2. Internal violence; 3. External violence; 4. Other violence; 5. Total teacher burnout; 6. Emotional exhaustion; 7. Dehumanization; 8. Loss of sense of accomplishment; 9. Total Post Traumatic Growth; 10. Finding internal strengths; 11. Increased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2. Discover new possibilities.

V.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을 파악하여 피해교사의 심리적 지지 및 강화를 제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돕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가 40대보다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10), Shin(201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폭력피해경험이 많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신규교사 및 저연령 교사들을 중점 대상으로 폭력예방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배 교사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 소진의 차이는 성별과 교직경력에서 유의하였으며,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Yu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ee(2011)와 Lee(2012)등의 연구에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정서적 고갈수준과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Yun(201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Lee(2016)의 메타분석에서도 교사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연구가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여 성별에 따른 업무특성에 차이와 이것이 교사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 소진의 차이는 21~30년이 가장 높았으나 Kim & Na(2018)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에 따라 소진에 차이가 없었고, Park & Choi(2015), Yun(2015), Lee & Song(2009)의 연구에서는 경

력이 적은 교사가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50대에 편중되어 있어 연령과 경력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ark & Choi(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Yun(2015)의 연구에서는 미혼자가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결혼상태 뿐 아니라 동료, 가족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무와 직위에 따른 교사 소진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Park(2017)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Yun(2015)의 연구에서는 직위에 따라 소진의 하위영역 중 개인적 성취감 상실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따라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 소진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는 성별에서 유의하였으며,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McMahon 등(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Han(2016), Lee(2015)의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외부요인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외상 후 성장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Kim, 2016), 외상 후 성장이 단순히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외상 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변화와 인지적 과정(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가족 및 동료들로부터의 심리적 지지(Kim, 2018)와 같은 내·외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 연구를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9%가 최근 1년 이내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Choi(2016)의 연구결과 70.9%,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APA(2016)의 연구결과 80%, 터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Ozdemir(2012)의 연구결과 48.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고,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Yeum(2014)의 연구결과 92.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Park(2010)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와의 갈등 및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여 본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폭력경험실태는 표집의 특성 뿐 아니라 측정도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각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세분화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폭력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 폭력피해경험의 유형별 빈도와 점수는 내현적 폭력, 외현적 폭력, 기타 폭력 순이었으며, Jang 등(2012), Lee & Jo(2015), Choi(2016)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폭력의 빈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내현적 폭력에서 ‘인신공격 또는 욕설’의 경우 본 연구결과 93.1%로 Lee & Jo(2015)의 연구결과 77.3%, Choi(2016)의 연구결과 87.7%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 외현적 폭력에서 ‘흥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함’의 경우 각각 10.8%, 6.2%로 Choi의 연구결과 6.7%, 4.4%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언어적 폭력과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내현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학생들의 언어순화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의미하는 외현적 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기타 폭력은 빈도 자체는 적지만 폭력피해의 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피해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치유가 보다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와 연계하여(Busan Education Office, 2019) 폭력성향 고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별적인 관심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교사 소진 점수는 평균 2.13점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 Na(2018)의 연구결과 2.54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2016)의 연구결과 2.1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Hwang(2015)의 연구결과 1.75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 급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담당업무에 따라 소진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진의 하위 영역은 본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 비인간화 순으로 Kim & Na(2018)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Hwang(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 순이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정서적 고갈의 점수가 높았던 점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피로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소진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외상 후 성장 점수는 평균 2.89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2016)의 연구 2.18점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2008)의 연구 2.67점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상 후 성장의 하위 영역은 본 연구에서 자기지각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Lee(2015), Kim(2018)등 선행연구에서 하위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영역별 외상 후 성장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후속연구의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성

별을 통제하여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편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폭력피해경험은 교사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사 소진의 하위영역인 비인간화,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감소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소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Choi(2016), Lee & Jo(2015), Park & Choi(2015)의 연구에서도 폭력피해경험과 교사 소진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폭력피해경험의 하위영역인 내현적 폭력과 외현적 폭력은 교사 소진 및 소진의 하위영역 모두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타폭력은 소진의 하위영역 중 비인간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언어폭력과 무례한 행동, 위협적 행동과 신체폭력은 교사로 하여금 정서적 고갈을 증가시키고 교육활동에 무능력하게 대응하게 하며, 학생을 기계적으로 대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의 성별에 상관없이 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증가하므로 교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Jeong & Yu, 2015) 교사의 폭력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폭력 피해 교사들은 학교를 포함한 제도적·환경적인 도움체계가 부족하여 심리적 후유증과 소진을 개인적 수준에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Park & Jo, 2015). 따라서 폭력피해로 인한 소진을 극복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돕는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와 Kim(2018)의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성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검증한 결과, 폭력피해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인 새로운 가능성 발견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Han(2016)의 연구에서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지각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로 외상 후 성장에 촉진제 역할이 됨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피해 후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회복탄력적인 재통합 과정을 보인 연구(Kim, Go, & Lee, 2012),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권침해가 아닌 문제행동 자체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응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힌 연구(Lee, 201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적 정서를 자기위로 능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Shin & Lee, 2014)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결과 교사가 폭력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폭력피해경험과 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높을수록 교사는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신체화 등 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고(Shin, 2017), 언어적 폭력경험과 적대감, 신체적 폭력경험과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신체화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Yeum, 2014). 또한 McMahon 등(2014)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은 우울, 불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매맞는 교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외상 후 성장을 강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결과, 교사 소진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인 내적 강점 발견, 대인관계 깊이 증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소진을 많이 경험한 교사는 폭력피해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상 후 성장이 저해되고, 내적 강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대인관계 깊이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교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Shin & Lee(2014)의 연구에서 교사의 낮은 회복력이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Jeong & Yu(2015)의 연구에서 소진을 경험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 실패감, 개인 능력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Kim & Kim(2006)은 소진의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며, 집단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학교경영평가 시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대책과 예산지원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의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는 것은 폭력피해와 소진을 예방하고 줄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Reimagining Health Care, 2011)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외상 후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연구면에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폭력피해실태를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무면에서 본 연구는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교사 소진이 높으므로 폭력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대응매뉴얼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면에서 본 연구는 교사의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과 교직경력이 편중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 교사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APA(2016)의 보고서와 같이 일일 단위로 폭력경험을 수집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 폭력피해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장기간 폭력을 경험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누적효과나 기억의 오류로 인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써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폭력 상황과 교사소진, 외상 후 성장 등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교권

침해를 넘어 폭력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학생들도 피해자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관계된 문제이나 본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 측면에서 교사의 폭력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열정을 다해 교직에 임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의 마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단위 학교별로 교사의 폭력피해 및 소진을 파악하여 대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B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4곳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37명 중 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0명(94.9%)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Wilson 등(2011)이 개발하고 Lee & Jo(2015)가 번안한 교사폭력피해경험체크리스트(Teach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Checklist: TVVEC),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Kim (1992)이 번안한 도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Song(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Partial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은 평균 48.84 ± 9.85 세였으며, 50대가 58.5%(76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53.8%(70명)였다. 교직경력은 평균 20.92 ± 12.16 년이었으며, 21~30년이 39.2%(51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4.6%(71명), 대학원 이상이 45.4%(59명)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81%(106명)이었으며, 직위는 평교사 76.2% (99명), 부장교사 21.5%(28명), 관리자 2.3%(3명)순이었다. 근무형태는 담임 교사 50.8%(66명), 교과담당교사 45.4%(59명), 상담 및 보건교사 3.8%(5명) 순이었다. 월수입은 300~399만원이 29.2%(38명)로 가장 많았다.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폭력피해경험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8, p=.0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사 소진은 성별($t=9.94, p=.002$)과 교직경력($t=2.55, p=.04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1, p=.037$).

다. 연구 대상자의 폭력피해경험은 교사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8, p<.001$),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 중 새로운 가능성 발견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4, p=.007$). 교사소진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32,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폭력피해경험을 예방하고 소진을 낮추며, 외상 후 성장을 돕기 위해 단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해결방안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첫째, 폭력피해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심신안정을 되찾는 노력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교육청과 국가차원에서 학교 급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맞는 폭력예방·대응 매뉴얼 및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교사의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여 예상치 못한 폭력피해 상황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강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각 학교의 상황 및 내·외적 환경에 따라 폭력피해정도와 교사가 인지하는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역 및 연구방법을 다양화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6). A silent national crisis: Violence against teachers. Retrieved from <http://www.apa.org/education/k12/teachervictimization>.
- Busan Education Office. (2019). Student Emotional Care System Operation Plan. Student Health Support Division.
- Corey, G. (1998).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ternational Thomason Publishing Asia.
- Choi, G. S., & Ju, C. A. (2015). Investigation of teachers' awareness of violation of teachers' rights. *B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5(1), 75-95.
- Choi, S. M. (2008). Exploring Post-Traumatic Growth Related Variables.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Y. R.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Burnout of Teachers: The Mediatl Effect of Cognitive-Behavioral-Emotional Re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 University, Seoul.
- De Wet, C. (2010). Victims of education-targeted bullying: Qualitative study. *South African Journal of Education*, 30, 189-201.
- Do, G. B.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chool Violence and Harassment Behavior. Doctoral'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Goldstein, A. P., & Conoley, J. C. (1997). Student aggression: Current status. *School violence intervention*. 3-19.
- Han, K. A. (2016). Prediction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among Emergency Room Nurses.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elgeson, V. S., Reynolds, K. A., & Tomich, P. L. (2006). A meta-

- 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5), 859-869.
- Hong, S. H.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on Jop Stress, Ego Resilience and Burn-out Factors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Hwang, M. S. (2015). The Effect of Student's Problem Behavior on Teacher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ang, J. O., Yoo, H. J., Lee, W. S., & Kim, I. S. (2013). School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403.
- Jang, Y. R. (2003).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about negligence of the teachers authority: based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schools in Kyonggi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 Jeong, Y. G., Sun, H. Y., Oh, J. H., & Kim, Y. B. (2018).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eachers' Experience of burnout overcom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6), 895-917.
- Jeong, Y. H., & Yu, H. K. (2015). A Study on Direction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psychological healing of teachers experiencing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5(9), 789-808.
- Kang, Y. H. (2009). Study on the specialist high schoo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D. I., Go, H. J. &, Lee, Y. H. (2012). Emotional Behavior Disabilities Resilience Process of Special Teachers Exposed to Viol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Behavior Disorder*, 28(2), 97-119.

- Kim, J. H.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 job stress and mental physical exhaustion. Doctoral thesis, J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H., & Kim, T. W. (2006). Job stress and burnout of teachers -Crisis of education-. Book publishing Bakhaksa.
- Kim, J. H., & Na, S. I. (2018).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 job exhaus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0(1), 97-124.
- Kim, M. S. (2017). Self-story of teacher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from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engnam University, Dae-gu.
- Kim, S.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Victimization as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focusing on the mediatingeffect of Self-disclosure and Rumination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T. S. &, Lee, J. Y. (2015). A Study on Teacher's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Direction of Harassment. *Counseling Research*, 16(5), 339-353.
- Kim, Y. A. (2016). Real-therapy based counseling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Doctoral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Y. H., Lee, S. J., & Koo, H, A. (2005). Teachers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and Burn-out Experi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587-600.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s. (2018).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 Kwon, O. H. (2010).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and

- mental health and exhaustion by teacher and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eoul.
- Lee, A. S., & Song, J. G.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Burnout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Korea Sports Journal*, 16(3), 47-64.
- Lee, G. M., & Son, K. S. (2013). A Qualitative study about psychosocial sequela of teachers violence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59-178.
- Lee, G. M., & Jo, E. S. (2015). A Study on the Mediating Factors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heir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4), 1001-1022.
- Lee, J. I. (2011). Characteristics of School Organization, Social Suppor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Self-Efficacy, and Teacher Burnout Relationships. Doctoral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Lee, P. S. (2017). The Effec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jury Experience by Violent Problem Behavior on Teacher Burnout and Teacher Self-efficacy Belief.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0(3), 155-175.
- Lee, S. H. (2012).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burnout of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Gyeong-gido.
- Lee, S. J. (2014). Research on Prevention and Support of School Safety Accidents based on Analyses of Work-Related Injury Experiences of Special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L. (2015). The Effects of Traumatic Event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

- traumatic Growth. *Humanities literature*, 39, 93-124.
- Lee, Y. M. (2016). Meta-analysis of teachers psychological burnout related variabl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5(4), 441-459.
- Martin E. P. Seligman.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Book publishing Moorpurae.
- Maslach, C., Jackson, S.E., & Leiter, M.P.(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 Mcmahon, Susan D., Martinez, Andrew., Espelage, Dorothy., Rose, Chad., Reddy, Linda A., Lane, Kathleen., Anderman, Eric M., Reynolds, Cecil R., Jones, Abraham., & Brown, Veda. (2014). Violence Directed Against Teachers: Result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Schools*, 51(7), 753-766.
- Ministry of Education. (2017).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2017). Act on Prevention and Counter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 Ozdemir, S.M. (2012). An Investigation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Turke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9(1), 51-61.
- Park, C.,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796.
- Park, D. J. (2012). Influence of student misbehavior on burnout of teacher: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lab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D. J., & Choi, S. C. (2015). The Influence of Student Misbehavior Perceived by Teachers on Teachers Burnout: Mediating Effect of

- Emotional Labor.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8(2), 77-102
- Park, H. G. (2017). Study on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 Work Load and Job Stress By Comparison with General High School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 Park, K. A., & Jo, H. J. (2015). The Study on Infringement condition of teachers' right and Coping Course of teachers' bullying by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teachers.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2(2), 93-122.
- Park, S. Y. (2010). Risks and Protection Factors of School Adjustment Flexi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 Reimagining Health Care. (2011). Post-Traumatic Growth and Building Resilience. Retrieved from <https://hbr.org/2011/03/post-traumatic-growth-and-build>
- Ryu, B. K. (2013). The Research on the Violence on the Teacher as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Center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Case. *Korean Juvenile Policy Association* 21, 67-95.
- Shin, J. E. (2017).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their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Y. S., & Lee, J. Y.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sooth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Middle School Education Research*. 62(3), 463-489.
- Song, S. H.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

- Stress*. 93), 455-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IES). (2010). Indicator 5: Teachers Threatened with Injury or Physical Attack by Student.
- Wilson, Catherine M., Douglas, Kevin S., & Lyon, David R. (2011). Violence Against Teachers: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2353-2371.
- Yang, G. H. (2014). An Analysis of Post-traumatic Growth Process. Doctoral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Yeum, J. H. (2014). Experiences of violence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Effects on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Yu, J. E, Park, S. H., & Yu, S. K.(200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Burnout of helping professional, counselors and teachers. *Youth Counseling Research*. 62(2), 111-120.
- Yun, D. H. (2015).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n Psychological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Education University, Seoul.
- Yun, M. S., & Park, E. A. (2011). Post traumatic Growth among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9, 61-89.

부록1.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설 문 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경험과 소진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본 설문지의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입니다. 작성에 대한 결정은 자발적이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지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밝힙니다. 평소에 느끼신 대로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년 월 일

부경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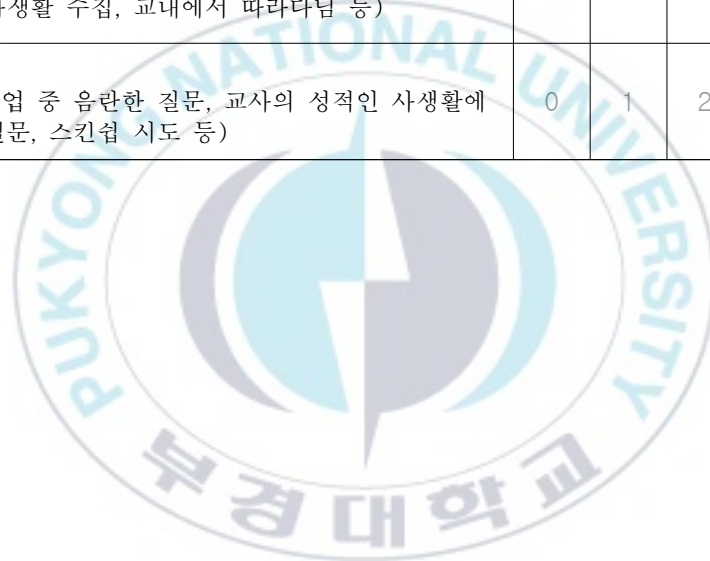
김수희(suya0807@naver.com)

부록2. 설문지

I. 선생님께서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수업 및 지도 시 학생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노출되었는지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한번 도 없 었 다(0)	드물 게 있 었 다 (1-3 회)	가끔 있 었 다 (4-6 회)	종종 있 었 다 (7-9 회)	자주 있 었 다 (10회 이상)
1	인신공격 또는 욕설 (예, 직접 욕설 또는 들리도록 욕설을 함)	0	1	2	3	4
2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무례하고 저속한 몸짓 (예, 손가락 욕, 비웃음,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봄, 교사를 부정적으로 흉내 내기 등)	0	1	2	3	4
3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관계를 해치는 말 (예, 선생이면 다냐,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말, 무조 건 '아니오'의 반응 등)	0	1	2	3	4
4	갑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참을 만한 수준의 상습 적 행동 (예, 무단결석 선포, 신고 협박, 무단조퇴, 등)	0	1	2	3	4
5	갑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나 품행 (예, 노려보기, 침 뱉기, 소리 지르기, 갑자기 일어 나기 등)	0	1	2	3	4
6	흥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가할 듯이 '위협'함 (예, 때리려는 자세, 의자를 차거나 책상을 엮기, 창 문이나 거울을 깨, 사물함 등 기물파손)	0	1	2	3	4
7	흥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폭력을 '시도' 함 (예, 손, 발등을 사용하여 가격을 시도하였으나 상해 를 입히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등)	0	1	2	3	4
8	흥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폭력을 '가함' (예, 손, 발을 사용하여 실제 가격, 할퀴어 상해를 입힘 등)	0	1	2	3	4
9	흥기를 소지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할 듯이 '위협'함 (예, 칼, 가위, 라이터 등 흥기를 꺼내 보이거나 들어댐, 의자 등의 기물을 던지려는 시늉 등)	0	1	2	3	4
10	흥기를 소지하고 신체적 폭력을 '시도'함 (예, 칼, 가위, 라이터 등 흥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거나 의자 등의 기물을 던졌으나 제지되거나 상해를 입히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등)	0	1	2	3	4

11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함' (예, 칼, 가위,ライター 등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거나, 의자 등의 기물을 던져 상해를 입힘 등)	0	1	2	3	4
12	개인 소유물 훼손 (예, 교사의 개인물품 절도, 차량의 고의파손, 수업 관련 마이크·노트북·USB 파손 등)	0	1	2	3	4
13	가족들에 대한 폭력 위협, 시도, 실제 폭력행위 (예, 교사 자택 전화로 협박, 실제 폭력 시도 또는 가해 등)	0	1	2	3	4
14	스토킹,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예, 개인연락처로 끊임없이 연락, SNS등을 통해 교 사의 사생활 수집, 교내에서 따라다님 등)	0	1	2	3	4
15	성희롱 (예, 수업 중 음란한 질문, 교사의 성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 스킨쉽 시도 등)	0	1	2	3	4



II. 다음은 선생님께서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1년 에 몇번 이하	한달 에 한번 이하	한달 에 몇번 이하	일주 일에 한번 정도	일주 일에 몇번 정도	매일 그렇 다
1	나는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0	1	2	3	4	5	6
2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진이 다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6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진다.	0	1	2	3	4	5	6
4	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	1	2	3	4	5	6
5	나는 어떤 학생들을 마치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6
6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고역이다.	0	1	2	3	4	5	6
7	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0	1	2	3	4	5	6
8	나는 요즘 수업과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0	1	2	3	4	5	6
9	나는 교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
10	나는 교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 간다.	0	1	2	3	4	5	6
11	나의 일이 나를 감정적으로 무더지게 하는 것 같다.	0	1	2	3	4	5	6
12	나는 매우 활력에 차 있다.	0	1	2	3	4	5	6
13	나는 업무로 인하여 때때로 좌절감을 느낀다.	0	1	2	3	4	5	6
14	나는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다.	0	1	2	3	4	5	6
15	나는 몇몇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0	1	2	3	4	5	6
16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도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0	1	2	3	4	5	6
17	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0	1	2	3	4	5	6
18	나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나면 기분이 좋다.	0	1	2	3	4	5	6
19	나는 교직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일을 많이 이루었다.	0	1	2	3	4	5	6
20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허망함을 느낀다.	0	1	2	3	4	5	6
21	나는 교직과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를 매우 차분하게 처리한다.	0	1	2	3	4	5	6
22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것 같이 느낀다.	0	1	2	3	4	5	6

Ⅲ. 아래 문항은 교직생활에서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경험한 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경 험 하 지 못 함	매 우 적 게 경 험 함	조 금 경 험 함	보 통 경 험 함	많 이 경 험 함	매 우 많 이 경 험 함
1	나는 교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0	1	2	3	4	5
2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3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4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0	1	2	3	4	5
5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0	1	2	3	4	5
6	나는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0	1	2	3	4	5
7	나는 교직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8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0	1	2	3	4	5
9	나는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0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0	1	2	3	4	5
11	나는 학생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0	1	2	3	4	5
12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0	1	2	3	4	5
13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5
14	나는 주변 사람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0	1	2	3	4	5

I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세
3. 귀하의 교직 경력은? ____년
4. 배우자 ① 있다 ② 없다
5. 교육정도 ① 대학교 졸업 ② 대학원 재학 ③ 대학원 졸업
6. 귀하의 현재 직위는? ① 교사 ② 부장교사 ③ 관리자(교감, 교장)
7. 담임 유무 ① 담임 ② 비담임 ③ 기타(보건, 상담)
8. 월수입 정도(단위: 만원)
 ① 200이하 ② 200~300 ③ 300~400 ④ 400~500 ⑤ 500이상



부록3. 폭력피해경험도구 사용동의서

☆ Re: 교수님~반갑습니다. 연구도구 승인 부탁드립니다^^

보낸사람 이규미 <kmee@ajou.ac.kr> 19.01.07 11:46 주소추가 수신차단

수희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사폭력피해에 대해 연구하시는군요. 도구사용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기쁜 일이지요.
손조로운 연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 아름답고 청명한 봄날이 기다려 지네요.

그럼에도 좋은 봄날 되십시오.

아주대 이규미

2019년 1월 6일 (수) 오후 3:31, 수희 <suya0807@hanmail.net>님이 작성:

저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김수희라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이 교사소진과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준비중인데
교수님께서 번안하신 교사폭력피해경험 체크리스트(Teach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Checklist: TVVEC)를 사용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구 사용을 허락해주시면 학위논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교수님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교사 소진 도구 사용 동의서

RE: 교수님~전화드렸던 김수희입니다^^ ☞

보낸사람 김정휘 <kcw@cnu.ac.kr> 19.03.16 15:52 주소추가 수신자단

연락사항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스트레스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문을 써서 심사 받으시고 졸업하는 일이나, 직장 생활하는 일이나 내조하면서 얼마 역할까지 맡으시느라 힘들죠.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만 해결되지 않고 이런 저런 회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응능력을 길러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찬 삶을 사는 것이 어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본인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향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유익하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소를 알려주면은 스트레스 관련 연구자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수희 <suya0807@hanmail.net>

받는사람: <kcw@cnu.ac.kr>

날짜: 19.01.15 17:09 GMT +0900

제목: 교수님~전화드렸던 김수희입니다^^

교수님~반갑습니다^^부경대 간호학석사과정에 있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학위논문주제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과 교사소진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준비중 인데 교수님께서 번안하신 교사소진도구(MBI)를 사용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구 사용을 허락해주시면 논문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집필하신 저서들과 신문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꽃샘추위에 교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록5. 외상 후 성장 도구 사용 동의서

FW: 외상후 성장 척도와 관련 논문 등 레퍼런스 입니다.

보낸사람 송승훈 <sseunghoon@naver.com> 19.03.17 21:55 주소추가 수신자단

일반파일 4개 (4.73MB) 모두저장

- 2007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송승훈, 학위논문, 1월 5일_도서관 제출_공유용.pdf 895.25KB [미리보기](#)
-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PTGI)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송승훈 2009 v 14. n1 한국건강심리학회 논문.pdf 3.62MB [미리보기](#)
- 외상후 성장 K-PTGI 척도(21문항_16문항 Full) 제공용.pdf 146.17KB [미리보기](#)
- 2006_송승훈 등_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_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pdf 92.64KB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아래 레퍼런스를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승훈,미홍석,박준호,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송승훈,김교현,권선중,미홍석(2006)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6 No.1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수희 <suya0807@hanmail.net>

받는사람: <sseunghoon@naver.com>

날짜: 19.01.15 02:26 GMT +0900

제목: 교수님^^연구도구 승인부탁드립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김수희라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이 교사소진과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준비중인데 교수님께서 번안하신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를 사용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도구 사용을 허락해주시면 학위논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교수님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주소 : (48513) 부산시 남구 동소로 45
전화 : 051-629-5670 Fax : 051-629-5234

문서번호	PKNUIRB-2019-03	발송일자	2019. 1. 11
연구과제명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폭력피해경험이 교사소진과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과제번호	2019-03		
연구책임자	김수희	소속	간호학과
IRB 심사기간	2019. 1. 7. (월) - 2019. 1. 18. (금)		
심사결과	승인 ☒ 시정승인 ☐ 보완 ☐ 부결 ☐		
총 연구기간	승인일 - 2019. 12. 31.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 자료 보관기간 및 자세한 폐기 방법에 대한 추가 서술 요망 ○ 연구참여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참여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서면 동의 필요하며,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계획, 장소 및 방법 등(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의 제시 필요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인)

